

“아산장학생들의 꿈을 항상 응원하겠다”

글 편집부 / 사진 송은지



대표로 장학증서를 받은 아산장학생들(앞줄)과 아산재단 임원진, 내빈이 자리를 함께했다. 뒷줄 왼쪽부터 최재성 · 이상주 아산재단 이사, 김주화 · 조영주 의생명대학 원생장학생, 이봉주 아산재단 이사, 최종원 아산재단 감사, 정진규 · 이병규 · 이춘림 아산재단 이사, 이경숙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이흥구 아산재단 이사,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 김태현 · 한승주 · 김유후 아산재단 이사, 광채기 동국대 사회과학대학장, 유지수 국민대 총장, 이원근 명지대 부총장, 김대곤 국방부 복지정책과장(대령), 이승규 아산의료원장, 시티 · 에르페느따와 외국인장학생, 오몽래 경찰청 복지정책과 계장(경정).

아산재단은 2월 27일 오후 2시, 서울아산병원에 자리한 아산 생명과학연구원 1층 강당에서 2018학년도 장학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수여식에는 이흥구 · 장정자 · 이상주 이사 등 아산재단 임원진과 이관 전 과학기술처 장관 · 남궁진 전 문화부관광부 장관, 각 대학 및 MIU(Men in Uniform, 군인 · 경찰관 · 소방관 · 해양경찰 등 제복 입은 공무원) 관계자, 장학생과 학부모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산장학생에 선발된 학생들과 장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참석한 유지수 국민대 총장 · 이원근 명지대 부총장 등 대학 관계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인사를 전한 뒤 “가난과 질병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뜻에서 아산재단을 설립하신 아버님은 한평생 꿈에 도전하신 분이다. 아버님은

어떤 상황에서 무슨 일을 하건 전심전력을 다하셨다. ‘더 하려야 더 할 게 없는,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다하는 최선’이 아버님의 평소 생각이었다. 아버님처럼 꿈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선친인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를 회고했다.

40년 동안 학생들에게 사다리 역할

정몽준 이사장은 “아산재단은 설립 직후인 1977년부터 장학 사업에 힘을 쏟아왔다. 국가와 여러 기관의 장학금이 늘어났지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학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산재단의 장학제도는 지난 40년 동안 학생들이 미래의 꿈을 꿀 수 있도록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고 아산재단 장학제도의 의의를 설명한 뒤 “올해까지 32,268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 아산재단은 성적우수장학생을 비롯해 군인·경찰관·소방관·해양경찰 등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 자녀들을 격려하기 위한 MIU(Men In Uniform)자녀장학생과, 경제적인 어려움에도 학업에 정진하는 나래장학생, 소외된 이웃을 위해 봉사하는 재능나눔장학생 등을 선발해 지원하고 있다. 재단이 그동안 배출한 3만여 명의 장학생들은 국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며, 잠시 후 축사를 해주실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객체기 학장님도 아산장학생 출신이다. 객체기 학장님은 오늘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선배로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됐다”면서 재단의 여러 장학제도와 장학생들의 활동상, 그리고 객체기(57) 학장을 소개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이어서 “아버님은 지금은 북한 땅인 강원도의 시골에서 정식교육이라고는 서당 3년, 초등학교 3년 다니신 게 전부였다. 하지만 동네 구장님 댁에 배달되던 신문을 보러 한 시간씩 걸어갔고, 신문에 연재되던 이광수의 소설 <흙>에 나오는 변호사 허송처럼 되고 싶어서 가출한 뒤 서울에서 막노동을 하시면서도 당시 변호사시험인 고시를 보실 정도로 학구열이 높으셨다. 독학으로 공부해서 그런지 애석하게도 세 번이나 고시를 보았는데도 합격하지 못했다고 말씀하셨다. 오늘 여러분에게 아버님의 자서전인 <이 땅에 태어나서>를 나눠드렸는데 어렵게 사셨던 얘기가 재미있게 나와 있다. <이 땅에 태어나서>를 꼭 한번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한 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장학생 여러분은 모두 늘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성취하는 자랑스러



인사말과 축사를 하고 있는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과 객체기 동국대 사회과학대학 학장(위부터).

운 아산장학생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산재단은 여러분들이 잘 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여러분을 응원하겠다”는 말로 장학생들을 격려했다.

봉사와 배려 공유하는 아산정신

1981년 아산장학생으로 선발되어 대학원에서 석사를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받은 객체기 학장은 축사에서 “당시 집안 형편으로는 도저히 공부를 계속할 수 없었지만 아산재단 장학금 덕분에 무사히 학업을 마쳤고, 그 결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의 선배로 서게 됐다”며 감회를 피력했다.

객체기 학장은 “우리가 삶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약점과 실패는 오히려 도전정신을 발휘하게끔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정주영 아산재단 설립자께서 “시련이란 뛰어 넘으라고 있는 것이지, 걸려 넘어지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던 말씀은 참으로 혜안이 아닐 수 없다”면서 “나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한탄하기에 앞서 여러분 스스로 기회를 만들어낼 것”을 후배 장학생들에게 당부했다.

객체기 학장은 이어서 “지금 우리 사회는 경쟁을 뛰어넘는 봉사와 배려의 정신이 요구되고 있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인재가 돼야 한다. 봉사와 배려의 정



①정몽준 이사장이 의생명과학분야장학생과 외국인장학생 대표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한 뒤 격려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조영주(스탠포드대 응용물리학 1학기), 김주화(연세대 나노메디컬 3학기), 에르메스따와(몽골·고려대 건축사회환경 2학기), 시티(말레이시아·이화여대 예코과학 2학기) 장학생. ②성적우수장학생과 다습장학생 대표에게는 이홍구 아산재단 이사가 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오른쪽부터 이정훈(한양대 원자력공학2), 이한술(숙명여대 독일언어문화2), 김법준(연세대 전기전자 2), 광나린(가톨릭대 영미언어문화3) 장학생. ③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장학생과 학부모, 각 대학 관계자 등 270여 명이 참석했다.

신을 공유하는 것이 아산정신이고, 아산장학생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도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고 아산정신을 설명한 뒤 “진정한 즐거움은 절제에서 비롯된다. 앞으로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되길 기원한다”는 말로 축사를 마무리했다.

나래장학생에게 생활비도 지원

설립 직후부터 인재 양성과 교육기회 불평등 해소를 위해 장학 사업을 펼쳐온 아산재단은 이날 장학증서 수여식에서 고등학생 500명, 대학생 787명(MIU자녀장학생 230명 포함), 대학원생 27명 등 총 1,314명에게 장학금 50억 원을 전달했다. MIU자녀장학생으로 선발된 김준하(한국외대 언어인지과학2) 학생은 “MIU 자녀장학생 대표로 증서를 받아 기쁨이 두 배로 컸다. 아산장학생들이 자부심을 갖도록 재단에서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대학생 장학생 중에서는 성적우수장학생(157명)과 올바른 봉사문화 확산을 위해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소외된 이웃과 나누는 재능나눔장학생(172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급했다. 광나린(가톨릭대 영미언어문화3) 성적우수장학생은 “행사에 참석한 학생수가 많았는데도 재단 직원들이 친절하고 자세히 안내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장학증서를 받고 나니 아산장학생이 됐다는 실감이 난다”며 뿌듯해했다.

신체장애를 딛고 학업에 정진하는 다습장학생(29명)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성장하거나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나래장학생(복지 66명, SOS 103명 등 169명)에게는 등록금 전액 외에 매월 생활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난해부

터 시행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비 지원제도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원석(명지대 행정4) 나래장학생은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학업에 열중할 수 없었다. 장학금만이 아니라 생활비까지 지원받아 학업에 전념하게 됐고, 학교생활에 자신감이 생겼다”며 고마워했고, 이한술(숙명여대 독일언어문화2) 다습장학생은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광채기 학장님의 축사는 졸업 후 진로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장학생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고등학생 장학생 중에서는 저소득가정의 고등학생들이 온라인으로 학습하여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수강권과 교재를 지원하는 e-learning장학생(500명) 선발이 눈에 띄었다. 또한 아시아 등 저개발국에서 자비로 국내 대학원에 유학 중인 외국인 10명에게도 등록금 전액을 지원했다.

지난해 신설한 국내외 의생명과학분야 대학원생 장학제도는 작년의 7명에서 올해에는 17명으로 인원이 늘었다. 대표 학생으로 장학증서를 받은 조영주(스탠포드대 박사과정) 장학생은 “다른 대학에서 의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장학생들과 교류할 기회가 생겨서 기쁘다. 의생명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나라 의과학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재단은 1977년 설립 이후 올해까지 32,268명의 학생들에게 총 658억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다. 

※ 인사말과 축사 전문은 아산재단 홈페이지(www.asanfoundation.or.kr)에서 볼 수 있습니다.